

鶴棲 柳台佐의 삶과 문학*

김 수 현**

Ⅰ 국문초록 Ⅰ

鶴棲 柳台佐(1763~1837)는 정조대 활발히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풍산류씨 서애 류성룡의 후손으로 서애 가문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온 문과급제자였다. 그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 선친의 말씀에서 '忠孝'와 '和敬'을 떠올리고, 당호를 '충효'와 일맥상통하는 '화경'으로 편액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자 하였다.

류이좌는 蔡濟恭의 문인으로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며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는 注書로 임금 곁에서 매일 『堂後日記』를 기록하였고 이후 世子侍講院 弼善을 역임하는 등 文才를 인정받으며 왕실의 최측근으로 중앙 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의 시는 감정을 절제하고 표현을 간결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그가 지은 시들은 화려한 수사로 치장되거나 감정이 과장되지 않았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담백한 필치로 그려냈을 뿐이다. 그의 시가 가진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제미라고 할 수 있다.

류이좌는 채제공의 문집 『樊巖集』을 간행하는 등 다양한 출판 사업에도 관여하였다. 그는 지방관으로도 활약하였는데, 학문 활동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세금, 군정 등의 문제를 개혁하여 백성들의 고초를 덜어주 고자 애썼다.

[주제어] 풍산 류씨, 류이좌, 가문, 영남, 화경당, 하회, 시문학, 절제미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Ⅲ. 문학과 정계 활동 |
| Ⅱ. 가계와 학문 | Ⅳ.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1803)

** 경북대 한문학과 강사 / anohi@hanmail.net

I.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 후기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의 손길이 닿지 않은 鶴棲 柳台佐의 삶과 문학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류이좌¹⁾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첫째, 류이좌는 西厓 柳成龍의 후손으로 서애라는 큰 인물에 가려져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둘째, 화경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닌 和敬堂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은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화경당은 집의 규모와 더불어 이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고문서로 인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그 가문을 확립한 중심인물은 연구가 매우 소략하게 되었다. 柳台佐는 柳成龍의 후손이며 和敬堂의 중심인물이라는 점에서 일찍이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류이좌에 대한 개별연구는 없었다. 류이좌의 본가인 서애 류성룡에 집중되어 있고, 인물보다는 화경당에 치우쳐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鶴棲 柳台佐를 연구하여 학계에 알리고자 한다.

류이좌 연구에서 먼저 할 일은 다양한 자료를 분류하는 것이다. 류이좌는 초계문신을 지냈고, 중앙과 지방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매우 많다. 또한 그는 20권 10책에 달하는 개인 문집인 『鶴棲先生文集』을 남겼다. 이 외에도 ‘사도세자 신원 만인소’의 전말을 기록한 『壬子疏請日錄』, 아버지 류사춘과 금강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金剛錄』, 서애 류성룡의 문인록인 『厓門諸子錄』 등 여러 분야에서 저술을 남겼다. 화경당에는 그가 관직에 재직하면서 모은 수많은 책과 고문서를 비롯하여 목판, 탁본 등 14,100여 점이 있다. 이 자료들은 류이좌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당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실태를 보여준다. 자료에 나타난 다종다양한 사항들을 통해 류이좌와 그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화경당을 이끌어 갔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괄적인 차원의 연구만이 지속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연구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생애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시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등을 중심에 놓고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문집에 실린 행장의 기록과 그의 여러 문학작품 가운데 창작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하고, 문중을 답사하여 얻어낼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연보를 구성할 것이다.

둘째, 류이좌의 가계와 학문적 연원을 밝힐 것이다. 류이좌의 아버지 류사춘과 어머니 연안이씨의 삶을 살

1) 류이좌의 초명은 台祥태조였는데, 정조의 명으로 ‘너는 나를 도우라’라는 뜻으로 台佐로 고쳤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이야기는 화경당 문중과 안동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일화로 이 지역에서는 ‘류이좌’를 ‘유태좌’로 부르는 경우는 없다. 『승정원일기』에서 류이좌의 이름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임금이 하교하시어 말씀하길, 너는 항렬이 어찌하여 같지 않은가? 이좌가 말하길, 꿈에 조짐이 있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였다.”(敎柳台佐曰, 爾之行列, 何其不同耶? 台佐曰, 仍夢兆而改名矣. 『승정원일기』 91책(탈초본 1727책) 정조 18년 3월 10일 정유)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정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개명하여 ‘이좌’로 바꾸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류이좌로 표기하기로 한다.

펴보며 가계를 검토해 보며, 그가 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忠孝’의 가훈을 어떻게 계승해 가는지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伯父 柳宗春에게 수학하며 家學을 계승한 내력을 살펴볼 것이다. 풍산류씨의 학문의 연원은 서에 류성룡의 스승인 퇴계 이황에게서 찾을 수 있다. 퇴계에게 수학한 서에 류성룡은 후손들에게 학문을 전수하였다. 이후 풍산류씨는 가학을 전승해 왔으며 류이좌는 서에 학맥을 전수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넷째, 류이좌의 문학 활동에 관한 탐색이다. 류이좌는 정조대 중앙정계와 지방관직을 두루 거치며 여러 작품을 남겼다. 중앙정계에 재직하여 창작한 작품은 廣載詩, 임금의 사에 감복한 시 등 정조를 보좌하면서 지은 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관으로 지낼 때는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백성의 고초를 살피고 학문 진작에 이바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성향이 여러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또한 향촌의 여러 문인들의 만사를 비롯하여 서발문 등을 두루 지어 지역사회 대표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류이좌의 작품을 각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임금의 신하, 백성의 수령, 지역의 대표 등 개인의 삶보다는 사회적인 역할에 충실했던 그의 면모를 알 수 있다. 더불어 초계문신을 지내면서 본 御考를 살펴보면 그의 경학 해석과 정치적 성향의 일단을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류이좌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그의 주변에 대한 논의가 반복하여 재생산 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 분야에서 연구의 선편을 이루어 놓음으로써 후속 연구를 유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II. 가계와 학문

鶴棲 柳台佐(1763~1837)는 西厓 柳成龍(1542~1607)의 8대손이다. 류이좌의 아버지는 柳師春(1741~1814), 어머니는 延安李氏(1737~1815)이다. 류사춘은 서에 류성룡의 7대손으로 豐昌君 柳濤(1485~1528)의 4남이며, 연안이씨는 예조판서를 지낸 李之億(1699~1770)의 3녀이다.²⁾ 이지억은 후사가 없는 伯父 李萬成에게 입양되었다. 이만성의 딸은 蔡濟恭(1720~1799)의 어머니로 연안이씨와 채제공은 재종 혹은 내종간이 된다.³⁾ 류사춘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였고, 혼인한 후 서에 본가에서 분가하여 살림살이가 어려웠다고 한다.⁴⁾ 연안이씨는 한양의 명문가에서 귀하게 자라왔는데, 하회로 시집오면서 바뀐 상황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그는 이러한 소회를 <쌍벽가>에서 펼쳐 보이고 있다.⁵⁾ 류사춘과 연안이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난

2) 이지억의 아들 普延은 요절하였고, 딸들은 각각 尹恒鎮, 鄭章簡, 柳師春에게 시집을 갔다. 「外祖考贈吏曹判書行刑曹正郎李公墓碣銘」(『樊巖先生集』 권50) 참조.

3) 이에 관한 내용은 蔡濟恭이 쓴 李萬成의 묘갈명 「外祖考贈吏曹判書行刑曹正郎李公墓碣銘」(『樊巖先生集』 권50), 柳台佐가 쓴 李之億의 행장 「外王考禮曹判書府君醒軒李公家狀」(『鶴棲先生文集』 권19) 등에 상세하다.

4) 柳台佐, 『鶴棲先生文集』 권10, 「和敬堂記」, “당초 나의 선군께서 청렴 소박하고 검소 절약하며 관대 화평하고 근신 외구하사 조그마한 초가에서 여러 아들들을 가르치셨다(始吾先君, 靑素儉約, 寬平謹畏, 圭竇蓬門, 教誨諸子.).”

5) 연안이씨, <쌍벽가>, 『팔분스딘 고은손에/ 칠포치미 흐려니와/ 늑십스 꽤 노외시며/ 방한간이 아룁곳가』 <쌍벽가>의 원문은

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忠孝’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훌륭히 길러 아들 류이좌가 文科에 급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류이좌는 이러한 부모의 바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 아버지가 분가하면서 지은 집을 다시 보수하면서 평소에 아버지가 훈계하던 말씀을 떠올렸다. ‘매사에 반드시 충효를 다하고, 매사에 반드시 화경을 다하라. [每事克盡忠孝, 每事必要和敬]’는 선친의 말씀에서 ‘忠孝’와 ‘和敬’을 떠올리고, 종가에서 이미 사용하는 당호인 ‘충효’와 일맥상통하는 ‘화경’으로 편액을 걸고 늘 마음에 새기고자 하였다.

집안은 매우 淸寒하여 一瓢簞食로 지냈으며 쌀독이 자주 비는 정도보다 심하게 되었는데도 털끝만 큼도 재산을 경영하는 데는 뜻을 두지 않았다. 가르침은 독실하셔서 우리 불초한 자식들로 하여금 글을 읽게 하시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선대께서 남기신 사업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하셨다.⁶⁾

불초자가 외람되게 과거 급제자의 명단에 포함되어 州郡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과분한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것은 대대로 先祖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관직에 있을 때는 청렴하고 삼갈 것,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고 두텁게 할 것, 백성을 사랑하고 궁핍한 사람을 구휼하는 일로 거듭 일깨워주셨다.⁷⁾

류사춘과 연안이씨는 명문가의 후손으로 선대의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애써왔으며 자식들도 그것을 지켜주기를 바랐다. 류이좌는 부모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류이좌는 어려서 중형인 류상조와 함께 백부 畏齋 柳宗春(1720~1795)에게 학문을 배웠다. 류종춘은 1791년(정조 15) 류성룡의 후손으로서 음직에 천거되어 의금부도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수직으로 첨지중추에까지 올랐다. 풍산류씨 문중 학문의 전수는 영남의 다른 명문가와 비슷하게 家學으로 이어져 갔다. 柳仲郢에서 시작되어 柳成龍으로 이어진 풍산류씨 가학 계보는 이후 柳軫 - 柳元之 - 柳宜河 - 柳世鳴 - 柳後章 - 柳聖和 - 柳聖會 - 柳灑 - 柳宗春 - 柳尋春 - 柳台佐 등으로 전승되었다.⁸⁾ 류종춘은 늙어 죽기 전까지 가학을 이어서 향촌에서 글을 읽고, 학숙을 열어 족친을 가르쳤다. 집안에서는 그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기 위하여 친족들끼리 서로 가까이 하고, 떨어져있더라도 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뜻으로 학계를 만들었다.⁹⁾ 류이좌는 이러한 가문의 분위기 속에서 가학을 이어 갔고, 이후에 『厓門諸子錄』을 저술하여 영남학맥에서 서애가 차지하는 위상과 학문계승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풍산류씨는 조선시대 명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 집안에서 류성룡 이후로 拙齋 柳元之(1598~1678)를 제외하면 학서 류이좌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를 때까지 중앙 관직에 진출한 인물이 없었다.¹⁰⁾ 조상의

권영철, 「쌍벽가연구」, 『상산 이재수박사 환력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1972, 81~90쪽 참조.

6) 柳台佐, 『鶴棲先生文集』 권19, 「先考僉樞府君家狀」, “家甚淸寒, 一瓢簞食, 不啻屢空, 而毫不留意於營產, 教督不肖輩使之讀書, 勉力曰先業不可墜也.”

7) 柳台佐, 『鶴棲先生文集』 권26, 「先妣贈貞夫人李氏墓誌」, “不肖輩猥, 忝科名榮, 奉州郡, 則輒有過分之戒, 歷舉祖先以來, 居官淸慎, 接人寬厚, 愛民卹窮之事, 申告之.”

8) 김학수, 「17세기 西厓 柳成龍家の 學風과 그 계승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2014, 62~63쪽.

9) 이병훈, 〈1800년에 작성된 풍산류씨 學稜案〉 해제, 유교넷 참조.

음덕으로 가문을 유지하며 지역에서 꾸준히 사환이 이어지긴 했으나 가문의 명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영남의 정치세력은 1565년(명종 20) 사림파의 집권 이후 정계를 주도했지만 1623년 인조반정을 계기로 정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여러 정국을 거치면서 영남의 정치세력, 즉 남인은 정권에서 주변부로 물러나게 되었다. 풍산류씨를 비롯한 안동의 사족들은 갑술환국 이후 근기남인의 도태로 중앙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향촌에 고립되었다.¹¹⁾ 그러나 정조의 탕평정치로 인해 영남 및 근기 남인은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고 蔡濟恭의 주도하에 남인은 중앙 정계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¹²⁾ 이러한 상황에서 류이좌는 문과 급제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가문의 중흥을 주도하였다.

류이좌와 정조의 인연은 급제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류이좌가 문과에 급제하기 2년 전인 1792년(정조 16)에 조정에서는 柳星漢이 정조를 음해하는 상소를 올려 정국이 혼란하였다.¹³⁾ 이에 영남의 선비들이 萬人疏를 작성하여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다.¹⁴⁾ 당시 幼學의 신분이었던 류이좌도 여기에 참여하여 이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壬子疏廳日錄」을 저술하였다. 여기에는 영남의 선비들이 ‘사도세자 신원 만인소’ 작성에 가담하게 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과를 하루 단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는 현존하지 않는 첫 번째 만인소의 전말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정조와 류이좌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짐작할 수 있다.

류이좌는 1794년(정조 18) 종형 류상조와 함께 文科에 합격하였는데,¹⁵⁾ 정조는 이를 매우 기뻐하였다. 정조는 평소에 柳成龍의 문집인 『西厓集』을 읽으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참고하였다. 정조는 특히 壯勇營을 설치하고 華城을 건설하면서 柳成龍의 견해를 많이 참고했고, 그의 견해를 따라 화성을 건설하자 백성들이 축성 공사에 기꺼이 참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¹⁶⁾ 정조는 柳成龍이 살아서는 명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

10) 『豐山柳氏世譜』, 豐山柳氏門中宗會, 2007.

11)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558~563쪽.

12) 이수진, 「嶺南學派의 歷史的 機能과 그 限界」,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35~43쪽; 김성우, 「정조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 2012, 184~186쪽 참조.

13) 『正祖實錄』 16年 閏4月 4日 壬申條, “啓言, “柳星漢疏語之窮凶, 情節之陰惡, 諸臣御啓, 亦已概論. 今以其疏中逆心之呈露, 凶言之悖慢者言之, 最是上款講學之說, 而特以聖懷之不忍提到, 諸臣之不敢語及, 近臣疏啓, 每多隱映爲辭, 此固出於體聖上茹痛之懷, 有不忍言, 而以其不忍言, 而終不言, 則將何以明凶徒詬天之逆節, 解中外然疑之情乎? 臣請和淚泚筆, 冒死陳之. 昔在戊寅復講之學, 實爲群凶浸潤之階. 當聖壽倦勤之餘, 請十年已停之講者, 此魯禧諸賊網羅之計, 不在於勸聖學也明矣. 自是以後, 托講義而引喻者, 罔非媒孽之凶言也, 結粵援而交煽者, 皆是譖搆之凶謀.” 이하 『정조실록』이 원문과 해석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종합DB를 참조.

14) 영남 만인소의 내용과 이에 대한 임금의 비답은 『正祖實錄』 16年 閏 4月 27日 乙未條에 상세하다.

15) 어머니 연안이씨는 가사 〈쌍벽가〉에서 두 사람의 동방급제를 축하하고 있다. 연안이씨는 〈쌍벽가〉에서 류이좌, 류상조 두 사람을 ‘雙璧’이라 칭하고, 길함을 상징하는 봉황과 기린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또한 풍산류씨 집안에서 아주 오랜 시간 문과 급제를 기다려 왔고, 이로 인해 급제의 기쁨이 더욱 크다는 것을 작품에서 효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연안이씨, 〈쌍벽가〉, “쌍벽이 진퇴하니 봉황이 천의놀고/ 문광이 영농하니 기린이 원의노니/ 기기후 처음으로 문명하다 하리로다/ 삼익년 유래고풍 모두써서 웃는 거동/ 디당의 호혜신가 동정의 명월인가”

16) 정조는 수원성을 축조하는데 류성룡의 「山城說」(『서애집』 권15 잡지)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日省錄』, 정조 17년 12월 6일, “수원의 축성은 石城으로 하되 성의 제도는 중국의 법을 본뜨고 故 相臣의 논의를 널리 상고하고 상세히 헤아려 거행 하라고 명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명이 있자 다산 정약용은 『茶山詩文集』, 「城說」에서 류성룡의 「山城說」을 언급하였는데, “곡성이나 초루의 제도에 있어서는 文忠公 柳成龍이 이미 자세하게 말하였습니다(至若曲城譙樓之制, 文忠公柳成龍言之既詳).”라는 대목이 보인다.

여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고, 죽어서도 국가에 이로운 일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柳成龍처럼 국가의 일을 떠맡을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柳成龍의 8대손인 柳台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조는 임진왜란 때 柳成龍이 李如松을 비롯한 명나라 장수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서간 2첩과 명나라 장수에게 받은 그림을 편집한 시화 1첩을 열람하고 서문을 써 주었다. 정조는 이 글을 蔡濟恭이 베껴 쓰게 하고, 柳成龍의 후손인 柳台佐가 가지고 가게 했다.¹⁷⁾ 柳成龍에 대한 정조의 흠모와 그리고 그의 자손인 柳台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당시의 정국과 맞물려 더욱 공고해졌다.

류이좌의 학문에 대한 관심은 서적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그는 복잡한 정계의 분위기 속에 간행되기 힘들었던 『樊巖集』을 간행하였다.¹⁸⁾ 김해부사로 있던 류이좌가 채제공의 아들인 蔡弘遠에게 보낸 편지 「與參判邇叔」에서 『변암집』 간행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文稿의 교정은 이미 두서가 잡혔으리라 생각합니다.……刊役의 비용은 실제 부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처해 두고서 恩命이 내리기를 기다리려는 것입니다. 一路 선비들의 한결같은 뜻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校正한 것 한 帙을 미리 金梁(龍仁)의 墳菴에 가져다 두면 내가 上京할 때 들러서 상의하고 가져 오겠습니다. 그러면 번거롭지 않아 제때에 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¹⁹⁾

『변암집』의 간행을 위해 蔡濟恭 사후 그의 문인이었던 정약용과 李家煥(1742~1801) 등이 遺稿를 수습하여 校正하였다. 그 뒤, 正祖가 문집의 간행에 관심을 보이면서 御定凡例를 지어 내려, 이에 따라 문집을 再編하느라 바로 간행되지 못하였다. 이 후 정조가 승하하고 채제공의 문인을 포함한 남인 계열의 인물들이 다수 숙청되면서 채제공의 관직이 추탈되었고, 20여 년이 지난 뒤에야 伸冤되어 오랫동안 문집 간행이 불가능하였다. 1824년(순조 24) 마침내 류이좌가 『변암집』 간행을 주관하여 鳳停寺에서 판각하고 보관하게 하였다.²⁰⁾

류이좌는 영남 사림의 중추적 인물로 지역의 여러 큰 일에 힘을 보태었다. 그는 陶山書院에서 『退溪集』을 중간할 때 士林의 거둬들인 천거로 洞主가 되었다. 그는 그간 간행하지 못한 책 12권을 찾아내어 함께 간행하려고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생을 마쳤다.²¹⁾ 1838년(헌종 4) 2월 1일 도산서원에서 병산서원으로 보낸 通文²²⁾에는 류이좌가 『陶山全書』 校勘을 담당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추모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만

17) 『弘齋全書』 卷55, 雜著二, 「題文忠公柳成龍家藏皇朝諸將書畫帖」, “皇朝諸將書畫帖二卷, 畫帖一卷, 與故相文忠公柳成龍, 往復贈遺者也。其尺幅淋漓之間, 委曲情款, 渾無畦畛, 往往多勞人長者之風, 而至論戰守之機宜。……夫身用於當時, 則帷幄之謀, 足以傾華人之心, 言垂於後世, 則擬議之略, 至今爲國家之利。河山如故, 典刑無遠, 而流韻餘烈, 使人喟然而起九京之思者, 此豈目睫之論。飛蓬之問, 所能致哉。傳曰不厚其棟, 不能任重, 重莫如國, 棟莫如才, 儼故相之無愧色焉。於乎希矣。”

18) 류이좌는 이에 앞서 1818년(순조 18) 공을 신원하기 위한 疏를 士林을 대표하여 작성하기도 하였다. 柳台佐, 『鶴樓先生文集』 卷3, 「請樊巖蔡文肅公伸理疏 代士林作○戊寅」.

19) 柳台佐, 『鶴樓先生文集』 卷4, 「與參判邇叔」, “文稿校正, 茲間想已就緒矣。……費果有不足之慮, 故必欲先期措處, 以 恩命者此也。一路 衿紳大同之見, 舉皆如此, 幸望細賜俯諒。校正件一帙, 預爲奉置於金梁墳菴, 則台佐上京時, 歷入商議。齋奉 以來, 以爲不煩不擾, 及時經紀, 刊事之策矣。”

20) 김경희, 『樊巖集』 해체 참조.

21) 柳台佐, 『鶴樓先生文集』 卷21, 「行狀」, “丁酉秋, 陶山書院重刊文純公文集, 士林再薦公爲洞主, 公搜未刊文字十二卷擬并刊, 未果.”

22) 화경당 소장 通文, 通文 94.

나자는 내용이 보인다. 그는 영남 사람의 핵심 인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이어갔다.

류이좌의 서적 편찬은 앞서 살펴본 바처럼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류이좌는 풍산류씨 가문에서 가계가 쇠락하여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지 못하는 집안의 문집을 간행해 주기도 하면서 일족의 일을 돌보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종선조인 巴山 柳仲淹(1538~1571)은 이황 문하의 顔子로 평가되었으나 34세의 나이에 요절하여 큰 뜻을 펴지 못했다. 1808년(순조 8) 류이좌가 그가 남긴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문집을 간행하였다. 寓軒 柳世鳴(1636~1690)은 柳雲龍의 증손으로 柳元之(1598~1678)의 문인이었다. 賜暇讀書에 선발되고 홍문관 교리를 지내는 등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으나 일찍 죽고 家勢 또한 기울어 문집 간행이 더더졌다. 류원지의 5대손인 畏齋 柳宗春, 柳下 柳象春 등이 문집 간행을 하려다 경비 등의 문제로 간행하지 못하였는데 1833년(순조 33) 류이좌의 주관 하에 刊役을 마치게 되었다.

류이좌는 이렇듯 학문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憲宗은 1839년 祭文을 지어 애도하였다.

惟靈 죽은 이를 지칭은 퇴계의 학통을 이어받고, 서애의 덕업을 성대하게 하여, 교목이 꽃을 펼치 八葉서애의 8대손의 경사에 미쳤네. 경의 자질은 간결하며 차분하고 뛰어났다. 문장을 펼침에 명성을 떨쳤도다.

과거에 급제할 때 반열이 안인(중형 류상조)과 짝했으니 집안도 같았으며 나이도 동갑으로 같은 때에 함께 드러났네. 함께 어진 조상에 크게 감격하고 天語와 華袞이 친밀해졌네. 임금의 近臣으로 예원에 이름이 빛났으며, 옥서에 임명되어 경서를 끼고 세자시강원에 출입하였네. 『奎華名選』에 講製가 실리고, 임금의 총애가 융숭하였다. 주자의 백선을 우리러 본받고 학문을 연마하였네. 문학과 정사를 前後로 하여 은혜가 고을에 미치고 학문을 연마하여 교화가 넘쳤네.……

돌아보건대 이러한 노숙한 학문은 나에까지 미치었다. 쌓은 학문 못다 펴고 어찌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가. 암서[퇴계선생이 강학하던 암서현]와 옥연[서애선생이 강학하던 옥연정]이 心學의 유래된 곳이니, 篇帙을 존중하고 보위할 할 것이다. 어찌 슬픈 감회를 감당하라! 禮曹正郎을 보내 치제하니 흠향하기 바라노라.²³⁾

류이좌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이 글에서는 서애 류성룡으로부터 이어지는 가계와 문과급제 및 학문에 대한 깊이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의 학문은 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지방관으로 있을 때는 학문이 교화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3) 화경당 소장, 祭文 381 〈柳台佐 賜祭文〉, “國王遣臣禮曹正郎李容敏, 諡祭于卒參判柳台佐之靈。惟靈陶山統承豐原業盛, 喬木勇榮八葉延慶。卿姿簡靜蜚英, 摛文脚踏, 司馬齒佯安仁, 同室同庚一時。偕聞曠感賢祖, 天語華袞邇班, 簪筆藝苑, 刻名玉署, 雷肆出入橫經, 奎華講製, 嘉獎彌隆, 考亭百選, 仰體磨礱, 文學政事前後。恩紱專城, 養遂絃誦化溢。……眷茲耆學及予, 沖嗣抱蘊未展, 何遽零落, 巖棲玉淵由來心學, 尊衛篇帙, 曷任傷盡, 佯官致酌, 庶幾散格。”

Ⅲ. 문학과 정계 활동

류이좌의 문학은 정계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오랫동안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였는데, 이 때 겪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소재가 되고 내용이 되어 문집에 실려 있다. 초계문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사실로써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조정의 관리였으며 학자적 기풍과 글을 쓰는 문신으로서 자질을 함께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더욱 연마하였다.

류이좌는 1813년(순조 13) 世子侍講院弼善에 재수되었다. 世子侍講院은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고, 弼善은 세자시강원의 정4품 관직으로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벼슬이다. 아래는 류이좌는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있으면서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며 올린 시이다.

萬壽青山拜獻南	만수청산은 남산 같은 긴 수명을 축원하는데
龍樓問寢日朝三	하루에 세 차례 용루에서 문안하네.
仙香不讓蟠桃味	선향은 반도보다 못하지 않으니
包進瀛洲海外柑	바다 건너 신선 고을 감귤 싸서 바친다네.

通訓大夫行世子侍講院弼善 柳台佐製²⁴⁾

류이좌는 시를 쓸 때 감정을 절제하고 표현을 간결하게 하였다. 그가 지은 시들은 화려한 수사로 치장하거나 감정을 과장하거나 하는 면이 보이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담백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그의 시가 가진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제미라고 할 수 있다.

류이좌는 초계문신 김희락과 더불어 정조가 하사한 『문신강제절목』을 받고 감격하여 〈祗受 內賜節目一冊 與金叔明(熙洛)感賦一律〉한 수를 지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초야에 있던 자신에게 이런 큰 성은을 베풀어 준 데 대해 감격하고, 문무를 겸비하고 신하들에게 학문을 권면하는 정조에 대해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시는 임금이 하사한 책을 자손이 대대로 잘 보존하면 후대의 보배로 남게 될 것이라며 임금의 성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蓬瀛那意草萊臣	신선 세상에서 어떤 뜻으로 초야의 신하를 생각하여
時雨無私物物新	사심 없이 時雨 내려 주시니 만물이 새롭구나
天上紅雲垂禁禦	하늘 위 붉은 구름 궁궐에 드리웠고
閣中黃卷警簪紳	규장각의 서책들은 벼슬아치 경계 하엿네
兼文兼武規模遠	문무를 겸비했으니 규모가 원대하였고
呈朔呈旬照檢親	달마다 열흘마다 친히 점검하셨도다

24) 화경당 소장 작품으로 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寶篆煌煌奎閣字

규장보전 도장 글자 밝게 빛나니

千秋留作子孫珍

천추만세 내려가며 자손들의 보배로 남으리라²⁵⁾

류이좌는 『文臣講製節目』 이외에도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면서 정조로부터 다수의 內賜本을 하사 받았다. 내사본은 임금이 관아에서 발행한 책을 백관 또는 신하에게 하사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반포한 기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책의 표지 뒷면에는 내사기가 있어 책의 발행연대, 책을 하사받은 인물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류이좌는 『太學恩杯詩集』, 『杜律分韻』, 『御定陸奏約選』, 『御定朱書百選』, 『御製還餉策文』 등을 하사 받았다. 현재 화경당에서 소장하고 있는 내사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본다면 정조대 내사본의 특징적인 일면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울분운』의 출간으로 미루어 정조대에도 여전히 杜詩가 매우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등 당시 문학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어정육주약선』, 『어정주서백선』 등 정조가 친히 선정한 선집들을 살펴봄으로써 정조대 문풍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류이좌는 초계문신으로 御考를 치르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조금씩 드러냈다. 정조는 류이좌에게 ‘明德’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 가운데 어떤 것이 타당한 설인지 질문하였다. 류이좌는 ‘明明德’이 『대학』의 강령이 되어 사람들이 궂는 바에 따라 밝은 것을 회복하도록 한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었다.²⁶⁾ 정조는 批答을 내려 “명덕의 이미 발하고 발하지 않은 것을 발휘하였으니 기특하고 기특하다. 비로소 영남 학자들의 실지에 힘쓰는 것을 믿을 수 있다.”²⁷⁾라 하며 류이좌의 의견을 크게 칭찬하였다.

류이좌는 承政院의 注書로 재직하며 임금 옆에서 매일 『堂後日記』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사초로 활용되어 『承政院日記』 편찬의 주된 자료가 됐다. 주서는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7품 관직으로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담당하여 淸要職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춘추관기사관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하여 史草의 기록이나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과거합격자 중에서도 특별히 雄文速筆한 사람, 즉 문장이 뛰어나고 글씨를 빨리 쓰는 사람을 선발하였다.

류이좌는 임금을 최측근에서 보필하면서 문학적 능력도 인정받고 있었다. 류이좌는 초계문신, 주서 등 임금과 늘 가까이 지냈기에 임금이 지은 御製詩에 화답한 賡載詩를 많이 남겼다. 아래의 두 시는 각각 류이좌의 초계문신 시절, 정조가 지은 어제시와 류이좌가 그에 대해 次韻한 시이다.

25) 柳台佐, 『鶴棲先生文集』 卷1, 「祗受 內賜節目一冊與金叔明(熙洛)感賦一律」.

26) 柳台佐, 「御考」, 화경당 소장, 「臣對曰, 人之所得以生者, 有許多道理在裏. 其光明處, 乃所謂明德, 則明德者, 其惟本心之虛靈不昧者乎. 夫心者, 一身之主萬事之本, 兼理氣該體用盛貯具備, 敷施發用之機, 都在於一箇方寸之間. 而最其本然之初, 全體之妙得於天, 而虛靈不昧, 粹然爲具衆理, 而應萬事之一大本原. 故先儒之說心也, 以其得於天者名之, 得於天之謂德也. 舉其虛靈, 而不昧者稱之, 虛靈而不昧之謂明也. 明德之在乎人, 其所以盛貯, 則性也. 其全體之所在, 則心也. 其大用之流出, 則情也. 未發而爲此心光明之體, 已發而爲此心光明之用. 是以朱夫子之訓, 以人所得於天, 而虛靈不昧爲形容明德之第一義. 而有曰. 虛靈不昧四字, 說明德義已足. 又曰. 明德者, 心之表德. 盧玉溪又從而釋之曰, 明德, 只是本心, 虛者心之寂, 靈者心之感, 虛則明存於中, 靈則明應於外, 惟虛故具衆理, 惟靈故應萬事. 卽此觀之, 則朱夫子訓釋章句之旨, 與夫不曰性之表德, 而必曰心之表德者, 可從而推矣. 後來明儒輩, 必以心性二字對待發明於明德之說, 而至有所謂心之明, 卽性之明等語. 殆或近於鸛岡吞棗之病, 而矛盾於朱夫子立言本意之所在也.(후략)」 1796년(정조 20) 抄啓에 응하여 지은 것으로 『大學』의 ‘明德’에 관한 내용이다.

27) 柳台佐, 「御考」, 화경당 소장, 「批曰, 發揮明德之未發已發, 奇哉奇哉. 始信嶠南學者之實地著力」.

侍食諸君子	모시고 먹는 여러 군자들이여
能知此會數	이 모임의 뜻을 능히 알는지
伊吾完一帙	낭랑히 한 질을 완독했으나
工課殿三餘	공과는 삼여에 못 미치었네
每夜光明燭	밤마다 촛불을 환히 밝히고
今年左氏書	금년에는 좌씨서를 읽었도다
慈心識喜事	자궁께서 기쁨을 표해 주실 제
萊舞九詩如	노래자 춤에 구여시를 읊노라 ²⁸⁾

海東千一會	해동 조선 천재일우 때에 맞추어
此學盡猗歟	참으로 아름다운 이번 행사로구나
萊舞歡喜日	노래자 춤추며 기뻐한 그 날이요
麟毫筆削餘	역사의 붓으로 글을 더하였네
眞工教禹惕	참된 공부로 우임금, 탕임금을 편히 여기고
故事按朱書	옛일은 주서를 살피셨네
拊蹈賡宸什	기쁘게 춤을 추며 어제시를 따라 짓고
易筵幸晉如	연회를 베풀어 주시니 운 좋게 나아갔네 ²⁹⁾

정조가 『春秋』를 간행하여 한 질을 완독하고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에게 알리니, 혜경궁 홍씨가 정조가 어린 시절에 책 한 권을 다 떤면 책씻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음식을 마련하고 칭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니 정조가 이에 감흥하여 시를 지은 것이다. 정조가 御製를 써서 내리며, 入侍한 신하들과 『춘추』에 구두를 달거나 감독하며 간행하는 일에 참여한 신하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를 시로 썼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시에 화답하게 하였는데, 시를 지은 이는 22명으로 류이좌도 그 중 한 명이었다. 1799년(정조 23) 12월 8일의 기록이다.³⁰⁾ 류이좌의 시는 연회의 목적에 맞게 담백하고 간결하다. 정조가 왕 이전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노래자의 고사로 표현하였다. 아울러 우임금 탕임금의 고사로써 춘추의 공부 내용과 왕으로서 정조의 자질을 칭송한 부분이 군더더기이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류이좌는 정조의 측근에서 활동하며 정조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 류이좌는 정치적 야욕이 있어 정국을 좌우하려했던 인물이 아니었다. 초계문신으로 발탁되어 학자의 면모를 높이 평가 받은 것도 이러한 자질에서였다. 그가 정계에 참여하는 방식은 학문적 교감이었다. 정조는 『어정육주약선』, 『어정주서백선』, 『사기영선』 등의 선집을 다수 편찬하였다. 류이좌는 정조가 선집을 편찬하여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한 것은 매우

28) 『弘齋全書』卷7, 詩3, 「春秋完讀日, 慈宮設饌識喜, 諭示諸臣, 并小序」.

29) 柳台佐, 『鶴棲先生文集』卷1, 「賡進 完讀一帙獻祝 慈宮 御製韻 奎章閣講製抄啓時」.

30) 正祖 52卷, 23年 12月 8日 辛卯, “辛卯/召見閣臣. 敎曰: “予於近日, 課讀新刊《春秋》, 今日纔畢, 而慈宮爲念予幼少時冊施時【國俗小貌讀書竟卷, 其父母飲食以識喜, 謂之冊施時.】之事, 設小饌, 故茲與卿等共嘗之.” 群臣頓首賀, 書下御製, 命入侍諸臣及《春秋》懸讀及監印時與聞諸臣, 當寧春桂坊人, 並令賡進.

훌륭한 뜻이지만 후세 사람들이 간편함을 추구할까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경부에게 답한 편지[答張敬夫書]에, “제왕의 학문은 일반 선비들과는 다르다.” 하였는데, 신 류이좌는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치를 궁구한 뒤에 마음을 바를 수 있은즉 마음을 바루는 要訣은 학문 강론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문장이나 외우고 억지로 글의 뜻을 찢어 대는 식이라면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原集에 批點과 圈點을 찍어 초록하고 選集하신 일은 글의 깊은 맛과 뜻을 섭취하여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撮要를 만들어야겠다는 성대하신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후세에 이 책을 보는 사람이 혹 한갓 간편함만 좋아한다면 張南軒이 仁을 말한 대목들을 類聚한 것이 혹 학자들로 하여금 지름길을 좋아하고 速成을 바라는 마음을 열지나 않을까요?³¹⁾

비점과 권점을 찍어 초록하고 선집한 책의 간편함이 弊害가 된다는 것은 너의 말이 옳다. 내가 博學하되 約禮한다는 취지의 일단을 첨부하고자 하니, 학자들이 이 뜻을 알아서 말로써 뜻을 해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네가 현재 눈앞의 일을 끄집어내어 질문을 하니, 가상하고 가상하다. 특별히 鹿皮 한 벌을 하사하여 모호한 말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분발케 하노라.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만 못하여 巨篇이나 大帙을 천백 번 독송하길란 형세상 참으로 무리이다. 따라서 현재 時宜에 맞게 조치하는 방도로는 간편한 곳에 나아가 많이 읽기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나의 은미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³²⁾

류이좌는 학문을 하는 근본이 마음을 바루는 것이라 하고 문장을 익히는 데에만 몰두하여 학문하는 본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즉 정조의 선집 간행으로 진정한 학문은 뒤로 물리고 문장이나 익히려는 풍조가 성행할까 우려하는 마음을 매우 곡진하게 나타내었다. 정조는 직언을 하는 류이좌에게 사슴 가죽을 하사하고 다른 사람들 또한 류이좌를 본받아야 한다고 크게 칭찬하였다. 정조는 자신이 선본을 만든 이유는 시의에 맞게 조절하여 간편하게 만들어 많이 읽도록 한 것이라 하였다. 임금 앞에서 직언하는 류이좌의 올곧은 마음과 신하의 진심을 알아보고 치하하는 정조의 넓은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류이좌는 궁궐 밖에서 사적인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 류사춘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그는 금강산 만물상을 지나면 느낀 감회를 「萬物草路中」에서 표현하였다.

穿石披雲一履輕
金剛秀色正秋清

바위 틈 지나 구름 헤치는 발걸음 가벼운데
금강산 빼어난 경치, 正秋가 청명하구나

31) 柳台佐, 『鶴棲先生文集』, “答張敬夫書曰, 帝王之學與, 韋布不同. 臣台佐謹. 按窮理而后, 可以正心, 則正心之要, 莫先於講學. 然記誦割裂, 反或有害. 我殿下批圈. 選之工, 蓋出於咀英嚼華撮要便覽之盛意, 而後之覽此者, 或徒以便爲喜, 則張南軒之類聚言仁, 無或啓學者好徑欲速之心乎.”

32) 『弘齋全書』 권131, 「故寔」 3, 〈朱子大全〉 2, 甲寅, 選文臣柳台佐, 具得魯, 申絢, 姜浚欽, 洪命周. 批圈. 選之便爲弊, 爾言是矣. 竊附博而約之一端, 學者知得此意, 不以辭害義可也. 爾能拈出目下事爲問, 可嘉可嘉. 特賜鹿皮一領, 以勵諸人之含糊者, 今人不若古人, 鉅篇大帙之千百遍誦讀, 勢誠難能. 目今時措之方, 莫過於就處多遍數, 予之微意, 政亦在是. 원문과 해석은 한국 고전번역원 고전종합 DB 참조.

老僧競賀仙緣重
近海高山十日晴

노승은 다투어 仙緣이 거듭됨을 축하하니
바다부근 높은 산 열흘 동안 맑아서이네³³⁾

1구에서는 유람하는 경로를 묘사함으로써 금강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바위 사이로 길이 나 있을 정도로 험하면서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구름이 서려 있을 정도로 높은 곳이며 운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구에서는 금강산의 풍광을 ‘秀色’이라는 어휘로 표현하고, ‘正秋’를 그다음에 놓음으로써 음력 8월이 되어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풍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3구에서는 금강산을 찾아 선연이 지속되는 것을 노승을 주어로 삼아 객관화하였다. 4구에서 열흘간의 유람 기간 동안 맑은 날씨가 신선과의 인연이라 노래하고 있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박하고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하였다. 문신으로 왕의 측근을 지키며 글자 하나라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던 기풍이 개인적인 작품에도 전이된 느낌이다.

중앙 정계에서 문신으로서의 역할은 지방관으로 부임해서도 큰 성과를 냈다. 그는 각 지역의 실상에 적합하도록 學堂 건물을 짓거나 자신의 봉록을 보태어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문 활동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820년(순조 20)에 류이좌가 김해부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 때 허물어져 방치되어 있던 양사재를 성 밖으로 옮겨 다시 짓고 자신의 봉록을 보태어 문사들이 양사재에 기거하며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가 김해에 도착한 지 3일에 大成廟를 알현하고 首露 부인의 무덤에 참배하였으며 盆城臺를 방문하고 客館의 燕子樓에 올랐다. 누대의 북쪽으로 몇 길을 떨어진 곳에 가파른 언덕이 있었는데 작은 건물이 무너져 있었으나 수리되지 않고 있었다. 물어보니 마을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本府의 養士齋입니다. 십수 년 전에 沈能弼이 涵虛亭의 舊址에 이 養士齋를 건립하였습니다.”라 하였다. 沈能弼이 많은 선비를 위하여 設施한 뜻이 진실로 아름답고 성대하다 할 수 있다.

……城府의 가운데 풍악소리가 가깝게 들려 子弟들 중 輕俊한 자들이 쉽게 뜻을 잃었다. 그러므로 父兄이 居接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또한 한두 번의 厄運을 겪으면서 書籍과 土田을 잃어 齋는 비록 존재하나 教養하는 일은 폐하였다. 의론은 옮겨 짓고자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겨를이 없었다.……공사를 庚辰년(1820) 孟冬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에 준공하였다. 齋는 무릇 五架堂으로 여섯 칸이며 東西로 夾室이 각각 두 칸이 있으며, 廚旁과 庫舍를 구비하고 舊板을 걸어 놓았다. 새로운 문틀이 마무리되자 마을 내 老少 儒生를 모아 再拜하고 獻酬하였다.³⁴⁾

김해부에 부임해보니 燕子樓 북쪽에 폐허가 된 작은 누각이 있어 알아보니 옛날 沈能弼이 涵虛亭 舊址에

33) 柳台佐, 『鶴樓先生文集』 卷1, 「萬物草路中」.

34) 柳台佐, 『鶴樓先生文集』 卷10, 「金海養士齋移建記」, “余到金官之三日, 謁大成廟, 拜首露陵, 訪盆城臺, 遂登客館之燕子樓. 樓北數武有, 然小閣頽廢不修, 問之, 鄉人曰, 此本府養士齋也. 十數年前, 沈侯能弼, 因涵虛亭舊址建立是齋, 沈侯爲多士設施之意, 誠美且盛矣. 而城府之中, 絃之旁子弟之輕俊者, 易於喪志, 故爲父兄者, 不令居接, 且經甲乙運, 蕩失書籍與土田, 齋雖存而教養則廢, 議欲移建, 而力未逮. ……經始於庚辰孟冬, 越明年三月, 功告訖. 齋凡五架堂爲六間, 東西夾室各二間, 廚旁庫舍俱備, 用舊板揭之. 新楣既落, 招集鄉內老少草甫, 再拜獻酬.”

세은 養士齋라 하였다. 류이좌는 南冥 曹植과 濯纓 金駟孫 같은 大賢들이 강학한 고을의 遺風餘韻을 계승 보존하기 위하여 拱辰門 밖, 향교의 아래 조용한 곳을 골라 養士齋를 옮겨서 웅장하게 지었으니, 선비들이 이 재실에 모여 道學을 강론하고 예의를 익혀서 그야말로 나라의 근본인 진정한 선비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그는 학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민과 함께 직접 학문 활동에 참여하여 교류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작품이다.

학성의 진학소에서는 매년 겨울에 시사를 設接하였다. 내가 ‘學業은 기예가 아니니 시험 과목을 고쳐서 一經을 통독하는 것이 어떠한가’라 이르니, 선발된 여러 유생들이 모두 ‘근사록이 다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비로소 15일에 모임을 만들어 4책을 모두 읽는 경사를 이루었다. 그러나 배움은 생각에 근원을 두는 것이니 읽고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하물며 이 책의 이름이 근사로 더욱 독서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 생각하고 거듭 읽은 뒤에야 제군들이 학문에 힘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爲學在窮理	학문을 하는 것은 궁리에 달려있고
看書貴致精	책을 보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네.
休言音讀解	音讀하고서 이해했다 말하지 말라
須體近思名	모름지기 近思의 이름을 체득하여야 할 것이네. ³⁶⁾

류이좌가 안변부사로 재직할 시절에 고을의 여러 幼學들을 이끌어 함께 공부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이며 이때 읊은 시이다. 초계문신을 지낸 목민관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당시 幼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할만하다. 류이좌는 학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후학들에게 일반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역시 의견을 구하여 더불어 공부하였다. 또한 공부하는 선배로 후학들에게 문장의 표리적인 뜻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치를 궁구하는 것에 이르도록 노력하기를 권면하고 있다.

그는 군정이나 세금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힘쓰기도 했다. 다음은, 1807년(순조 7) 류이좌가 안변부사로 제수되었을 때 왕의 교지에 의해 안변부 백성의 실상을 보고하고 화재로 타버린 무기고와 군기들의 현황을 알린 내용이다.

대개 이 안변 고을은 우리나라 북쪽 통로의 첫 경계에 있어서 수초가 많은 늪이나 웅덩이가 아니면 모래와 자갈이 많은 산기슭인 까닭으로 해마나 공식의 풍년이 드물어서 흉년에 대비할 비축미가 없으

35) 柳台佐, 『鶴棲先生文集』 권1, 「示鶴城諸生 在安邊時」, “鶴城之進學所, 每年冬設接試士. 余謂學業, 末藝也. 改試爲課, 通讀一經, 何如. 與選諸生咸曰, 近思錄儘好. 遂設會十五日, 而了四冊盛事也. 然學原於思徒, 讀而不思, 何益之有哉. 況是編之名, 以近思, 尤當讀而思, 思而復讀, 然後可諸君其勉矣夫.”

36) 柳台佐, 『鶴棲先生文集』 권1, 「示鶴城諸生 在安邊時」

며, 재화가 흥왕하지 못하여 장사꾼들은 실업하고 고을에 천석 정도의 부자가 없으며, 한 사에는 백 가구의 마을이 없습니다. 그 거처하는 집들은 초가와 판잣집이며 먹는 음식은 피와 귀보리이고, 의복은 토산품인 삼베며, 그릇은 흙으로 구워 만든 토기입니다. 마음에서 조금 넉넉한 자라도 잔치나 제사에 뭇쌀을 쓰며, 고을 사람으로 벼슬한 사람이라도 거처하는 집에 대청이나 사랑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만 습속의 소박하고 비천해서가 아니고 실로 생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당초 세 고을의 군보를 이송할 적에 흥년이 들고 백성들이 흩어져 책립할 수 없었던 까닭으로 그 편의에 따라 넓히거나 좁혀서 일시적으로 조금 넉넉한 고을에 이송하여 본부가 대신 그 손해를 받아온 것이 이미 여러 해였습니다. 그로부터 뒤로 풍년이 들고 백성들이 모여들어 가구 수가 불어나 세 고을 인물의 변성이 도리어 본부보다 낮게 되었으니 옮겨 온 총 수를 각기 해당 고을에 다시 이송하여 본부에 편중되는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할 것 같습니다.³⁷⁾

류이좌가 부임한 안변은 지리적으로 바다와 산을 면하여 척박하기 그지없는 고을로 물산이 풍요롭지 못해 백성들의 삶이 지극히 곤란하였다. 고을의 재정이 어려운 중에 軍政에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실상을 보고하고 폐단을 없애달라고 건의하며 처분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류이좌는 지방관으로 부임한 곳의 백성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그 고을에서 이제껏 있어왔으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폐단을 없애주기를 청하였다. 그는 목민관으로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백성의 편의를 지켜주고자 하였다.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아직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류이좌의 삶과 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과정으로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柳台佐는 서애의 후손으로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忠孝’의 가훈을 지키려고 노력한 인물이다. 풍산류씨 서애문중 학문의 전수는 영남의 다른 명문가와 비슷하게 家學으로 이어졌는데, 그는 어려서 종형인 류상조와 함께 백부 畏齋 柳宗春(1720~1795)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 밖에도 변암 채재공의 문인이 되었는데, 류이좌의 어머니 연안이씨가 채재공과 인척 관계였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1794년(정조 18) 文科에 급제하여 초계문신을 지내며 정조의 신임을 받았다. 류이좌는 承政院의 注書로 재직하며 임금 곁에서 매일 『堂後日記』를 기록하였다. 注書는 문장이 뛰어나고 필기 속도가 빠른 사람을 선발하였는데, 그의 文才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류이좌는 또한 世子侍講院 弼善을 역임하며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37) 柳台佐, 『鶴樓先生文集』 卷3, 「安邊府應旨陳民隱疏」, “蓋此安邊一邑處, 在北路之初境, 東北大海, 西南巨嶽, 土地自來瘠薄, 除非沮. 之沛澤, 半是. 之山麓. 故年. 罕登, 備無俱, 貨財不興, 商販失業. 邑無千石之富, 社無百家之村. 其居草舍板屋, 其食稷糠耳麥, 其服土布, 其器土. 閭里之稍優者, 而燕祭之需用, 稻米鄉人之科, 宦也. 而居處之室, 絕無廳舍, 此不但習俗之樸陋, 而實由於生理之艱難也.”

그의 학문적 역량은 출판 사업에서도 업적을 남겼다. 류이좌는 당시의 복잡한 정계의 분위기 속에 간행되기 힘들었던 『樊巖集』을 간행하였으며, 문중의 여러 문집을 편찬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陶山書院에서 『退溪集』을 중간할 때 儒林의 천거로 洞主가 되었다. 그는 그간 간행하지 못한 책 12권을 찾아내어 함께 간행하려고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생을 마쳤다.

류이좌의 문학은 정계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오랫동안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때 겪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소재가 되고 내용이 되어 문집에 실려 있다. 초계문신이라는 제도로 정계에 입문한 사실로써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조정의 관리였으며 학자적 기풍과 글을 쓰는 문신으로서 자질을 함께 연마해야 했다. 그는 注書의 직책을 맡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간결하고 절제된 서술이 기풍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적인 감정을 술회하는 작품에서도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류이좌는 夫餘縣監, 北評事, 金海府使, 安邊府使 등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는데, 백성의 입장에 서서 세금, 군정 등의 문제를 중앙에 제기하여 당시 백성들의 고초를 덜어주고자 애썼다. 무엇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학문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그는 각 지방에 부임하면 곧 그 지역의 실상에 적합하도록 學堂 건물을 짓거나 보수하였다. 아울러 자신의 봉록을 보태어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문 활동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화경당의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놓음으로써 이와 비슷한 양상의 연구가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한다. 화경당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본 연구가 화경당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의 촉매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자료

- 柳台佐, 『鶴棲先生文集』, 웹DB, 유교넷.
 柳台佐, 「壬子疏廳日錄」, 웹DB, 유교넷.
 延安李氏, 〈쌍벽가〉, 화경당 소장.
 丁若鏞, 『茶山詩文集』, 웹DB, 고전번역원.
 正祖, 『弘齋全書』, 웹DB, 고전번역원.
 蔡濟恭, 『樊巖先生集』, 웹DB, 고전번역원.
 『豐山柳氏世譜』, 豐山柳氏門中宗會, 2007.
 『풍산류씨 충효당』, 한국국학진흥원, 2009.
 『풍산류씨 화경당(북촌대)』, 한국국학진흥원, 2014.
 화경당 소장 고문서.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유교넷, www.yukyo.net

한국고전번역원, <http://itkc.or.kr>

2. 단행본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한국국학진흥원편, 『국역 조선후기 영남사림일기』, 2010.

3. 논문

김성우, 「정조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 2012.

김수현, 「하회를 품고 있는 화경당 이야기」, 『풍산류씨 화경당(북촌택)』, 한국국학진흥원, 2014.

김학수, 「17세기 서애 류성룡가의 학풍과 그 계승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2014.

김형수, 「풍산류씨 충효당의 가계와 고전적」, 『풍산류씨 충효당』, 한국국학진흥원소장 국학자료 목록집, 2009.

이수진, 「嶺南學派의 歷史的 機能과 그 限界」,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 이 논문은 2016년 5월 27일에 투고되어,
2016년 6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6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7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Hakseo Ryu Yi-Jwa's Life and Literature

Kim, Suhyun*

Hakseo Ryu Yi-Jwa(1763~1837) was acted widely. He was the descendant of Pung san Ryu Family, Seoae Ryu Seong-Ryong. He rehabilitated the incline family and looked up to his parents' teaching. His parent said 'filial piety' and Ryu Yi-Jwa kept these words. He changed 'filial piety' which was used in the head family to 'harmony and respect' which was same to 'filial piety'. He hang 'harmony and respect' to house and tried to treasure the meaning of them.

Ryu Yi-Jwa won King Jeongjo's confidence deeply by acting as king's student with Jeong Yak-yong. He wrote *Hudangilgi* by King Jeongjo's side everyday and serviced in prince education center. These show that Ryu Yi-Jwa was needed for his writing talent and acted widely in government.

His poems are the characteristic in emotional control and a concise expression. He did not decorate poems with glamorous expression and not overstate emotion. He wrote a given situation with a happily turned phrase and a clean style. To make a long story short, his poems' characteristic is conciseness.

Ryu Yi-Jwa was concerned with many publication such as *Bunamjip* which is the collection of writhings of Che Je-Gong who was Ryu Yi-Jwa's teacher. He acted as alcaide also. In time staying local, he pat on the back to study and reformed taxation and military service to the public.

[Key Words] Pung san Ryu Family, Ryu Yi-jwa, Yeongnam area, Hwagyeongdang, Andong Hahoe

*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